

제 196 회 일본 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김사량문학에서 재일조선인문학으로

강연자: 곽형덕 (郭 炯德, 일본 와세다대학 박사)

일본 와세다대학의 문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연구과에서 연구조교수로 재직중인 곽형덕박사의 “김사량문학에서 재일조선인문학으로” 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4 월 26 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렸다. 곽형덕박사는 변경으로부터 일본문학을 바라보고 그 시대적 함의를 현재적 맥락에서 탐색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문학자들이 김사량문학을 자신들의 문학적 전범으로 삼게 되는 과정을 재일조선인문학사의 형성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과거 한국에서 김사량의 문학은 사상적인 차이를 이유로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연안군이 밀려나가는 과정에서 김사량의 문학은 김일성의 민주파에 반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후에 김사량의 문학은 김정일에 의해 사랑을 받게 되어 2013년에는 김사량에게 영웅칭호를 부여하는 등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왔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김사량문학은 김사량이 북한에 머물렀을 때 썼던 글들이 주류가 되어,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북한의 체제를 지지하는 도구로서 해석되는 경향이 많다.

김사량의 개인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는 1941년에 일본 문사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카마쿠라 소재의 고메신테 여관에서 1년간 거주하며 글을 썼는데, 이는 카마쿠라가 지리적으로 동경에서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눈을 피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 이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김사량 주위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는 일제 말 당시 장혁주와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장혁주는 조선의 작가들과 문제가 많았고, 후에는 동경문단에서 조선작가들을 비판하는 글을 다수 게재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1939년 김사량과 개인적으로 갈라서게 된다. 김사량의 인간관계는 10년 전에 공개된 타이완의 국민적 작가인 룡잉쥬과의 편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사량의 ‘빛 속으로’라는 작품에 대하여 김사량 자신이 내지인(일본인) 취향이라는 생각을 내비치면서, 둘 사이에 같은 식민지 출신 작가로서의 친밀감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김사량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다수의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것인 다케우치 미노루와 다케우치 요시미의 평가였다. 다케우치 요시미의 경우, 중국의 루쉰 등, 문학작가로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 많은데 김사량은 끝까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문학 및 역사 연구자로 다케우치 요시미의 조교이기도 했던 다케우치

미노루도 김사량에게 주목했다. 이는 당시 재일조선인문학과 일본문학은 일본문단 내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교류했었기 때문에 1945 년 일본의 패전 이후, 문학작품들을 편집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사량의 문학도 미노루의 시야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동시대인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던 김사량 이지만, 90 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의 잊혀지게 되는데, 이는 1952 년에 결성된 일본내의 총련으로 인한 재일조선 문학가들 사이의 충돌에서 기인한 것 이였다. 당시는 평양에서 체제에 연관된 글의 작성을 중용하던 시기였고, 일본어로 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사량의 문학은 남과 북 양쪽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김사량은 일본 내에서도 민단에도, 총련에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 이러한 작가들을 받아들여 주었던 것이 일본문단이였다.

마지막으로 박사는 김사량의 언어관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김사량의 일본어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가 다이글로시아(사회적 차원에서의 언어)적인 언어환경 하에서 일본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사량은 일본어나 국어라는 단어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내지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동시대의 장혁주와는 다르게 국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민족언어와 민족어를 확연히 인식하고 글쓰기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사량은 문학어로서 조선어가 위기에 처하자 이를 비판하며, 조선인 작가가 일본어로 글을 써야 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재일조선인 작가들은 남쪽에도 북쪽에도 편입될 수 없다는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좌절감은 고향이라는 키워드와 연관되어있다. 결국, 김사량을 포함한 당시 재일 조선문학자들에게 있어서의 고향은 통일된 남과 북으로서, 그들은 하나가 된 한반도를 꿈꾸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며 곽형덕박사는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질의응답

-질문: 간단한 질문 입니다만, 김사량이라는 이름은 그의 본명인지요?

-답변: 본명은 김시창입니다. 그리고 김시창은 1936, 1937 년 이후에 김사량이라는 필명을 만들어 갔는데, 당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가지 필명들 중에서 민중의식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길 바라며 김사량이라는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필명을 김사량이라고 지었습니다.

-질문: 강연도중에 고향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하시고, 강연을 마치시면서는 고향이라는 키워드가 제일조선인문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셨는데, 김사량 작품 중에서 고향의 키워드가 현저히 나오는 작품을 소개해주실수 있나요?

-답변: 1943~44 년까지 190 회 가까이 연재되며 매일신보에 실린 바다의 노래라는 작품에서 일본인들에게 있어 굉장히 배타적으로 조선인들에게만 알 수 있는 향수를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물오리 섬이라는 작품에서는 김사량의 고향인 평양의 모습도 드러나는데요, 평양의 봉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시의 이데올로기적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질문: 문학자들이 문학을 통해 고향회복을 한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당시의 작가들에 의한 언어적 실천자체도 자신의 고향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합치되어 있는 점이 보입니다. 실제로 김시중, 김석범과 같은 경우는 고향에 대한 지향이라는 것이 1960, 70 년대에 들어서는 김일성에 의해 핍박 받는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 남쪽의 독재에 대한 안타까움 등으로 표현됩니다.

-질문: 최근에 미국에서도 영어로 김사량의 작품이 번역되면서 언급되기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김사량의 작품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한국의 일반인들이 김사량의 작품을 읽는데 앞서, 우선 한국의 냉전적 사고방식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사량이 공화국에서 쓴 작품들에서 반미적이고 공화국찬향론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가 조금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방송국에서 김사량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도 했지만, '바다가 보인다'와 같은 후반부에 발표된 굉장히 서정적인 작품들이 공화국에서 쓰여졌다는 이유로 상충부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구자들에게는 물론 좋지만, 김사량의 작품들을 일반인들에게 추천하기엔 아직 한국사회가 변화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